

# 백승근 대광위원장, “BRT 고강도 방역·안전운행에 만전”

## - 3일 세종 BRT 차고지 찾아 방역관리 등 철저 당부·S-BRT 실증 협조도 요청 -

□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3일 세종시 BRT\* 버스 차고지를 찾아 코로나-19 방역실태와 폭염 속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.

\* BRT(간선급행버스체계, Bus Rapid Transit) :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급행 버스가 운행 되는 교통시스템

□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-19 방역 및 폭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, “세종 BRT는 대전·세종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 하면서,

○ “코로나-19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업계에서 고강도 방역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요청하였다.

○ 또한 “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온도 유지와 배차간격이 준수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□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“세종시가 S-BRT\* R&D 실증사업지로 선정(21.1.)되어 양문형차량·섬식정류장 시범운영이 BRT 차고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”면서,

\* S-BRT(슈퍼-간선급행버스체계, :3기 신도시 교통대책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지하철수준의 교통 서비스 제공

○ 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R&D 연구과제들이 세종 BRT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덧붙였다.

2021. 8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